

칠레 11월 경제 동향 (2023년 경제 분야별 전망 등)

작성자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2022-11-23

1. 2023년 칠레 경제 마이너스 성장 예상

- (칠레) 최근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2023년 칠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.3~0.5%로 전망됨(△국제통화기구(-1.3%), △칠레중앙은행(-1.0%), △중남미·카리브경제위원회(-0.9%), △세계은행(-0.5%)).
- 경제전문가에 따르면, 현재 칠레 경제는 국내 정치·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△생산성 저하, △저축 및 투자 감소, △기대심리 위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인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
- (역내) 한편 ECLAC 발표한 역내 경제 전망치에 따르면, 對중국 수출 의존도(전체 40%)가 높은 칠레 경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영향을 받아 2023년 마이너스 성장(-0.9%)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, 역내의 경우 △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확대 △인플레이션 △변동성 및 재정비용 증가로 2022년, 2023년 중남미 역내 성장 전망치는 각각 3.2%, 1.4%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.

2. 칠레 산업별 전망 부정적

- (광업) 칠레 광업진흥협회(Sonami)에 따르면 △구리, △몰리브덴, △금, △은 등 2022년 칠레 광물 생산량은 530만 톤으로 4.5% 성장하였으며, 2023년에는 구리 총생산 570만 톤이 성장을 견인해 광업 분야가 6~7%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.
- 2023년 평균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3.3~3.5 달러로, 광물자원 수출은 550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, Sonami 연구관은 내년 광업 활동의 큰 성장이 없다면, 2023년 예측되고 있는 칠레 GDP 마이너스 성장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
- (관광) 칠레관광협회(Achet)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팬데믹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관광 시장은 금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, 이는 기저효과 반영일 뿐이며 2019년과 대비 금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은 68% 감소, 2023년에도 0~1% 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

- 특히 관광 성수기였던 2017년 640만명 외국인 관광객 방문에 비해 2021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19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, 이중 대부분 취업을 위해 입국
- (건설) 칠레건설협회(CChC)에 따르면 금년 건설투자는 △고인플레이션, △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지속 상승, △건설자재가격 상승세 등으로 4% 하락하였으며, 2023년은 5.3%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.
- (농업) 농업협회(SNA)에 따르면, 금년 담 물사용과 풍부한 강설량으로 인해 수자원 상황이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GDP는 2% 하락, 2023년에도 올해와 큰 변동 없이 0.4% 성장을 예측하였으며, 성장둔화 주요인으로 △농가 경제 어려움 심화 △이웃 국가 경쟁력 확대 △칠레 주요 생산 품목인 체리 가격 하락 등을 언급함.
- (은행업) 금융기관협회(ABIF)는 2022년 채권유입 하락과 2023년 GDP 마이너스 성장을 고려해 2023년 은행업계 성장률은 3.2%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.
- (제조업) 제조업진흥협회(SOFOFA)는 2023년 제조업이 1% 하락 또는 금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, 2022년에는 △식품, △화학, △기계류, △장비 분야의 성장둔화로 -1.7%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.
- (상업) 산티아고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2년, 2023년 △매출 기준 각각 마이너스 5%, 3%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, 내년 △소비분야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.

3. 공공·민간투자 전망

- 칠레 자본시장협회(CBC)가 발간한 금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공공·민간 투자는 금년 대비 34% 하락해 139억 3천만 불로 전망됨.
- (민간투자) 2023년 민간분야 투자는 금년 144억 7천 3백만 불 기록 대비, 52억 2천 8백만불(-36.0%) 감소한 92억 4천 5백만불로 예상됨.
 - 특히 △에너지(-47%, 17억 8백만 불), △광업(-37.5%, 14억 6천백만 불), △부동산(-38.8%, 11억 4백만 불)분야 성장둔화가 주요인으로, 이외에도 △기술(-30.3%), △산업(-43.1%), △임업(-100%) 분야 투자 감소가 두드러짐.
- (공공투자) 한편 2023년 공공분야 투자는 자원이 집중되는 공공사업과 광업분야에 큰 지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30% 감소해, 46억 8천 5백 불로 예측됨.

